

#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9~10월 판가름

강원 정선군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여부가 오는 9~10월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. 정선군은 문화재청이 오는 8월 중 현지 실사에 이어 9~10월에 수마노탑 국보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수마노탑 국보 지정 신청서는 지난 3월 제출됐다.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도전은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.

정선군 관계자는 “정밀 발굴조사 3차례, 학술대회 3차례, 종합학술자료집 발간 등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국보 승격이 희망적이다”고 말했다.

수마노탑은 높이 9m의 7층 모전석탑(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)이다. 분황사 모전석탑의 전통성을 계승한 고려 시대 모전석탑으로 평가받는다. 이 탑

은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다.

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창건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 하나다.

이밖에 강원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에서 만항마을로 이어지는 총 4.2km의 ‘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’이 최근 개통됐다.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은 1천500년 전 신라 시대 고승인 자장율사의 숨결을 느끼며 힐링하는 자연 친화적 생태탐방로다.

정선군 관계자는 “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에 이어 유형문화재까지 갖추게 되는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”며 “전체 군민과 함께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운동을 펼치는 이유”라고 강조했다. ♣



정암사 수마노탑  
국보 승격을 기원합니다

**정암사 수마노탑** 보물 제410호

수마노탑은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7층 석탑이다. 이 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하여 적멸보궁 안에 불상을 모시지 않는 대신, 산 중턱에 세워져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. 1972년 이 탑을 해체, 복원할 때 탑의 내부에서 사리 및 관련 기록이 발견되었다. 사적기에 신라 자장율사가 처음 세웠다고 하나,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, 조선시대에 와서 1700년(숙종26), 1778년(정조2), 1874년(고종11)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.